

# 어린이의 눈과 마음으로 세상 읽고 쓴다

논술, 글쓰기 열풍으로 글모음집 출간 이어져

어린이책은 크게 동화, 그림책, 지식책 등으로 갈래가 나뉜다. 이를 좀더 세분하면 동화·그림책은 국내 창작물과 번역물, 옛이야기 그리고 동시집과 과학·환경·역사물 등의 지식책으로 나눌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보편적인 분류만으로는 담아내지 못하는 분야가 있다. 어린이들이 쓴 '글모음'이 그것이다.

어린이들이 쓴 글모음은 기성 작가들이 펴낸 여느 책들과 달리 어린이들의 생각과 경험에 솔직하게 드러난다. 때문에 글쓰기를 지도하는 부모들은 또래 동무들의 글을 보여줌으로써 자연스럽게 글쓰기를 유도할 수 있어 글모음집을 선호한다. 여기에 최근 불어닥친 논술, 글쓰기 열풍은 글모음 출간을 더욱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과거와 달리 최근 출간된 어린이 글모음은 일기와 동시 그리고 독서감상문은 물론 관찰기록문, 영어일기, 여행담까지 다양하게 아우른다.

## 독자적인 출판 장르로 자리잡아

출판계에 어린이 글모음이 등장한 건 1980년대 초부터다. '한국글쓰기 교육연구회'(이후 한국글쓰기연구회로 개명)를 중심으로 어린이들의 생각을 책으로 담아내는 일을 이끌어왔고 그 결과물인 어린이 글모음은 이제 독자적인 출판의 한 장르로 자리잡고 있다.

《아무도 내 이름을 안 불러 줘》《아주 기분 좋은 날》《주먹만한 내 똥》《엄마의 런닝구》 등은 한국글쓰기연구회가 보리와 함께 펴낸 글모음집들이다. 이 책들은 각 지방 초등학교들의 일상생활, 곧 즐겁고 기쁘고 짜증스런 일들을 자연스럽게 담아 엮었다. 그 가운데 5·6학년 아이들의 글모음인 《주먹만한 내 똥》은 사춘기에 들어서는 아이들의 고민을 환히 들여

다볼 수 있고, 동시 모음인 《엄마의 런닝구》는 직감으로 내뱉듯이 써내려간 시어 속에서 코끝을 찡하게 하는 감동을 만날 수 있다. 최근에는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의 살아가는 생생한 이야기를 담은 《아무에게도 하지 못한 말》과 《날고 싶지만》을 엮어서 펴냈다.

글모음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 단연 일기모음이다. 일기가 그날그날 자신이 겪은 일을 정리하고 느낌을 곁들이는 만큼 어린이들이 가장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글쓰기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내가 처음 쓴 일기》(윤태규 외, 보리), 《나는야, 일기왕》《솔직히 털어 놓고 싶어》(이상 우리기획, 계림닷컴), 《나도 일등한 적이 있다》(송민주, 비룡소), 《나는 즐겁게 뿔뿔릴 학교로 갔다》(초록별아이들, 북뱅크), 《수민이의 일기》(진수민 글·우성남 그림, 청동거울) 등 일기 모음집은 일일이 손에 꼽을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 책들은 자기 주변의 일들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부끄러움조차 꾸밈없이 써내려간 낯것 그대로의 어린이들을 보여준다. 또한 조기 영어교육의 바람을 타고 《내가 처음 쓰는 영어일기》(정수미 외 글·소윤경 그림, 청솔) 등 영어일기도 속속 출간되고 있다.

## 틀에 맞춘 글쓰기 조장 우려도 있어

3년 전부터 <풍풍 글쓰기> 시리즈를 펴내고 있는 청솔은 일기와 독서감상문에 이어 최근 《나 홀로 화장실 청소》(김영진 외), 《오빠 얼굴에 난 여드름》(최진수 외) 등 관찰기록문을 펴내고 있다. 청솔의 배수원 편집장은 "한 아이의 글보다 다양한 아이들의 글을 발굴해 소개하는데 중점을 둔다"며, "관찰기록문은 가장 자연스러운 글을 얻기 위해 기획에서 출간까지 1년



이상이 걸렸다"고 털어놓는다. 배편집장은 또 어린이 글모음에 쏟아지는 꾸준한 반응에 대해 "글쓰기, 논술지도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이 자연스럽게 '사례모음' 류의 책들로 옮겨간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런가 하면 어린이들의 현장학습과 수행평가를 돕는 책들도 출간됐다. 세손교육이 펴낸 《박물관에 간 아이들》《유적지에 간 아이들》(이상 그루티기 엮음)이 그 면면이다.

하지만 이처럼 글의 효용성을 강조하는 책들은 자칫 아이들의 '숙제해결용'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글쓰기를 지도하는 부모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어린이도서연구회 이송희 사무총장은 "최근의 논술 열풍은 아이들에게 내용을 일정한 틀에 맞추는 위험한 글쓰기를 조장한다"며,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논리적인 글짓기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솔직한 글쓰기다. 아이들이 주제, 소재의 한계를 뛰어넘는 자유로운 상상력을 발휘하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글쓰기 교육"이라고 강조한다.

이 밖에 시모음으로 《아버지 얼굴 예쁘네요》(이주영 엮음, 온누리), 김용택 시인이 마암분교 아이들과 엮은 《학교야 공차자》(보림), 《달팽이는 지가 집이다》(푸른숲), 《天(하늘)아, 나를 보거라!》(윤지영, 얼과알) 등이 나와 또래 친구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 박옥순 기자